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9 월 선교편지

SEP 03, 2016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
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
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
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
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 이다.
(대상 29:14)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한국은 추수의 계절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며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더욱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어지게 되리라 믿으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어 또 다른 영혼들의 쉼터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숭바섬 교회 건축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7, 8월 집중적으로 숭바섬 사역을 하고 현재 복음이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3곳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숭바섬에는 아직도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이 3마을 교회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을 하게 되리라 굳게 믿으며, 아직 교회 건축에 부족한 재정들과 모든 건축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숨바섬 산속 마을마을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배고픔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현지 사역자분 들의 헌신으로 각 마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사역자분 들이 더욱 성령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숨바섬 선교에 왔던 한 청년이 숨바 현지 사역자분 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마음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의 섬겨주시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새벽이슬 공동체 성경맥잡기 리더 국동표 입니다^^ㅋㅋ 숨바 선교는 저에게 큰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숨바 선교 현지 전도사님들 세족식 기도회 끝난 후~~ 제 마음에 오토바이와 아이들 신발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전도사님 8분 오토바이 1대 150만원, 아이들 신발 1,300원이면 사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의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에게 숨바 은혜를 나누면서~~~ 8월 한달 동안 기도하면서 숨바 품고 기도 결과 결혼감사 헌금, 적금 만기금, 회사 보너스 돈, 휴가 여행비용^^~ 이런 저런으로 소그룹 형제,자매님들이 모인 돈이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만들어서 이번주 주일날 오륜교회 선교부 목사님께 드려서 선교사님께 현지 전도사님들 오토바이 4대와 아이들 신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의 눈물의 헌신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2. 자카르타 한센인들을 위한 의족후원과 한센인자녀 교육후원사역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지난 8월 27일 한센인 마을에 가서 한센인 자녀 120명 교육후원 및 기도사역을 하였고, 쿠웨이트에 계신 집사님 가정의 후원해 주신 의족 2개와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인 수민이가 직접 제작한 의수 하나를 전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에 전달된 의수는 수민이가 방학 동안 한국에서 3D 프린트 제작을 공부하고 의수 하나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어 정말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임에도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의족이 필요한 한센인 분들이 약 150여명 기다리고 있고,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고통 받으면서 삶을 마감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한센인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슬람 분들이기에 이 분들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말랑 UKCW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UKCW대학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느라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원래 원하는 장소는 미화 150만불에 계약하고, 전에 미화 10만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대학을 이전하면서 그 장소로 들어갈려면 추가로 미화 40만불을 지불해야 되기에 중도금을 준비하고자 사방으로 뛰어봤지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사채까지 끌어서 간신히 미화 20만불을 8월 23일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도금을 다 지불하지 못해 사용허가가 안되었고, 부랴부랴 다른 장소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엄청난 가격들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를 주님께서 1년간 미화 2만불에 임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9월 1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단 감사하게도 UKCW대학 새로운 학기를 새로 임대한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빌린 사채반환 및 새로운 캠퍼스 계약잔금 미화 120만불을 준비하여 1년 후에는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는 UKCW대학 자체소유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말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으며 이제 UKCW대학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정진하고자 합니다. 동부자바 말랑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대학인 UKCW 대학이 수많은 이슬람대학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UKCW대학 기독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로 시작하게 되는 말랑 고아원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아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상황이 현재 있는 그 고아원을 저희가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말랑에 1928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고아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37명의 고아들이 아무런 정부 도움이나 후원없이 주변 사람들이 간간히 도와주는 식품으로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감당하기 벅찬데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시간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하루 3끼 식사준비를 하여 주고, 학교에 보내고 하는 새로운 조직과 체계와 재정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물질과 인력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며 9월 한 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9월 3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선교사 드림